

2021 경기도 청년연구 공모 결과보고서

경기도 청년고용정책과 청년의 정신· 신체 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Beyond the boundary

연구책임 | 박건우

공동연구 | 조서형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

■ 청년연구공모사업 보고서는 청년들이 청년 관련 현안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9 Fax : 070-8220-0200 E-mail : kimjm1785@ggwf.or.kr

목차

I | 서론 / 751

- 1. 연구의 배경 751
- 2. 연구의 방법 및 주요 내용 753

II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755

- 1. 청년기본소득의 개념 755
- 2. 청년기본소득의 구성 요건 756
- 3.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및 예산 757
- 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추진 성과 758

III |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조사 / 761

- 1. 수혜대상자 심층 인터뷰 762
- 2. 수혜대상자 심층 인터뷰 주요 내용 773

IV |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개선방안 / 775

V | 결론 및 시사점 / 779

| 참고문헌 / 781

표 차례

〈표 1〉 청년문제와 기존 정책의 한계	752
〈표 2〉 청년기본소득의 개념	755
〈표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규모 및 예산	758
〈표 4〉 청년기본소득 수혜자 인터뷰 주요 내용	763
〈표 5〉 청년기본소득 수혜자 인터뷰 주요 내용	773

그림 차례

〈그림 1〉 청년기본소득의 과정 및 지급절차	756
〈그림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기본소득 구성요건 충족 여부	757
〈그림 3〉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758
〈그림 4〉 청년기본소득 수급 후 삶의 변화	759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정신장애 등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정신건강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다는 질문에 청년층인 18세~29세의 11.9%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전일제직업일 경우 5.3%, 파트타임 7.7%, 미취업 10.5%로 등으로 취업상태가 불안정할수록 정신질환 유병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고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실태 파악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20~30대는 우울 평균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젊은 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특히, 20~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30.0%, 30.5%로 노약자 층인 60대(14.4%)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코로나19 국민 건강실태조사). 극한경쟁, 청년실업 등 사회적 문제에 따른 청년 정신건강 문제는 정부 및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²⁵⁾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년마인드케어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도입된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청년건강 악화를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5) 경기도의회 제326회 제3차 본회의, 2018.03.22

해외에서는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윌킨슨 가설 (Wilkinson hypothesis)을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됐으며, 실제로 소득 불평등이 신체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Kennedy et al., 1998; Soobader & LdClere, 1999; Blakely et al., 2000; Diez_Roux et al., 2000; Kahn et al., 2000; Lochner dhl, 2001; Subramanian et al., 2001; Subramnaian et al., 2003; Subramanian & Kawachi, 2003).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와 소득 불평등이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김혜련, 2005; 윤지은•전혜정, 2009; 강영주•정광호, 2012).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과 정신 및 신체건강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적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극복을 위해 본 연구는 보다 심도 있게 접근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한다.

<표 1> 청년문제와 기존 정책의 한계

	주요 내용
청년 및 일자리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는 생활안정을 위한 기반 요건이나,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함 - 대학 진학률은 70%에 육박하여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되고 있지만 , 고용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여성은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며, 재취업시 일자리 하향이동 등 더 열악한 위치임 - 경력단절 및 일자리 양립제도 활용 가능성이 차별적인 상황으로 성별 , 여성 내 일자리 양극화가 발생 - 청년은 현재까지와는 다른 문명 , 세대적 특성을 지니나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 - 21세기의 청년 세대는 다른 문화배경에서 성장하여 , 행동규범이나 가치관이 다양함을 고려해야함 - 일자리 등의 생활여건에 있어서는 취약한 상황이며 , 다양성과 자율성이 이해받지 못함 - 포기와 자발적 선택의 중첩
기존 정책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은 아직까지 시작단계로 대체로 실험적 수준에 그침 -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적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음

2. 연구의 방법 및 주요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청년들의 구직과 고용을 돕는 다양한 정책을 이론에 기반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해당 정책 시행에 따라 청년들의 정신 및 신체 건강 호전 등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청년구직 및 고용을 돕는 정책들의 도입 전후를 기준으로 경기도 청년들의 정신 및 신체 건강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개인별 정책 수혜 여부·기간·정도·방식 등의 세부 여건에 따라 실제 취업 문제를 경험하던 경기도 청년 개인들의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실증분석에서 밝히지 못한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한다.

II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 청년기본소득의 개념

경기도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 100만원수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에게 지급하여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²⁶⁾ 특히, 청년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기본소득이란 정기적이고 보편적으로 개인에게 현금으로 제공되는 무조건적 소득보장제도이다(이승주, 2019). 이는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자산, 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용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갈수록 심화 되는 소득 불평등, 양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2〉 청년기본소득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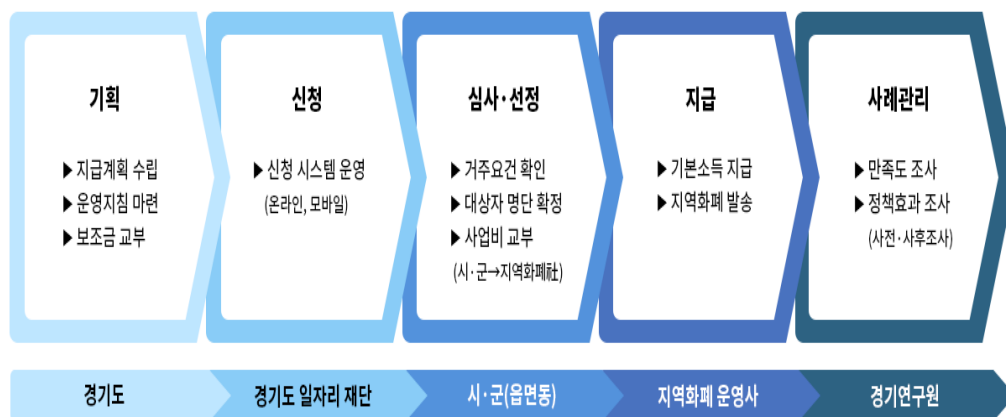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정의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원 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기본소득 지원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출처: 경기도(<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dx=1037&menuId=2736>)

26) 경기도청, 청년기본소득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dx=1037&menuId=2736>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상의 범주를 설정하는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유영성 외, 2019). 청년기본소득은 복지정책, 경제정책, 사회적기본권 보장 정책에 해당하며 기존 복지 대상층에서 가장 소외된 청년층에 대한 복지 배려 차원에서 출발했으나 점차적으로 포괄적인 사회적 기본권 보장까지 추구한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와는 달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의 복지 강화는 물론 소수 계층만 한정되어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표방한 만큼 지역 경제정책으로서의 성격도 두드러진다. 이를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사회복지정책과 지역 경제정책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경기도일자리재단,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화폐 운영사, 그리고 경기연구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림 1> 청년기본소득의 과정 및 지급절차



출처: 경기도(<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dx=1037&menuId=2736>)

2. 청년기본소득의 구성 요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으로서 의미 있는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청년기본소득의 기본소득 구성요건 충족 여부는 다음과 같다(유영성 외, 2020). 첫째, 보편성(만 24세 청년 전부를 대상으로 함), 둘째, 무조건성(취업상태, 노동 여부 등과 상관없이 지급), 셋째 개별성(청년 개인에게 직접 지급), 넷째, 주기성(1년

동안만 분기별로 지급된다는 점에 준주기성 특성을 지님), 다섯째, 현금성(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준현금성), 여섯째, 충분성(분기별 25만원 수준의 지급으로 생계급여보다 적은 액수) 등이 있다. 특히,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등은 기본소득의 필수 구성요건들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이 모두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기본소득 구성요건 충족 여부

기본소득 구성요건	충족 여부	내용	특이사항
보편성	△	- 만24세 청년 전부를 대상으로 함 (도내 3년 연속 거주 또는 전체 10년 거주)	범주보편성
무조건성	○	- 취업 상태, 노동 의욕 등을 묻지 않음 - 재산 및 소득 상태를 심사하지 않음	
개별성	○	-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의 가구주나 배우자가 아니라 청년 개인에게 직접 지급	
주기성	△	- 1년 동안만 지급 - 분기별(일정 주기)로 4회에 걸쳐 지급	준(準)주기성
현금성	△	-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 (특정 용도의 바우처나 상품권이 아님)	준(準)현금성
충분성	△	- 분기별 25만 원 지급/생계급여 (2019년 1인 가구 기준 월 512,102원) 보다 적은 액수 지급	BIEN에서 불인정 요건

주: 빨간색 표시 구성요건들은 기본소득 성립을 위한 필수 구성요건

출처: 유영성 외(2020: 2)

3.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및 예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2019년 4월에 시행되었으며, 매년 16~17만 명의 청년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다. 지급은 카드 및 모바일을 포함한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2년까지 추진 예정이며, 사업비는 경기도가 70%를 지출하고 나머지 30%는 개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본 제도를 통해서 68만 명 수준의 청년이 수혜 대상으로 사업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총 사업비는 6,866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규모 및 예산

(단위: 억 원, 명)

	구분	총계	2019	2020	2021	2022
사업비	계	6,866	1,753	1,746	1,698	1,669
지원대상	도비(70%)	4,806	1,227	1,222	1,189	1,168
지원내용	시군 비(30%)	2,060	526	524	509	501
사업량	주민등록수	686,550	175,281	174,557	169,812	166,900

출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2019). 2019년 청년기본소득 운영 지침(안)

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추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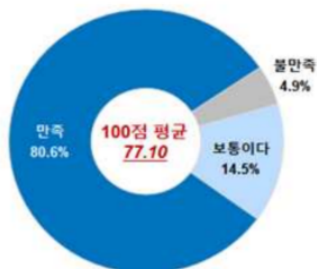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지급 대상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본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즉, 정책 만족도의 제고 차원에서 이러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대부분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1차 지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2차 결과 모두 80% 이상의 응답자가 본 사업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스럽다는 결과는 4%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

<1분기>



<3분기>



출처: 유명성 외(2020: 4)

또한,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은 후 삶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1~2차 조사에 걸쳐 60~65% 수준이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주로, 자기계발, 여행, 금전적 부담 완화 등으로 청년기본소득이 유용하게 활용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림 4> 청년기본소득 수급 후 삶의 변화

(단위 : %)

<1분기>



<3분기>



III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조사

제3장에서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수혜자를 중심으로 인터뷰 조사를 수행하여,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태도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개인별로 1~3 회차에 걸쳐서 수행되었으며, 실제 응답자 중 연구조사 결과 보고에 동의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작성하였다.

인터뷰는 설문조사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질적인 내용과 심층적인 내용과 자료를 조사 결과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터뷰는 설문조사에서 수집할 수 없는 해당 이슈에 대한 구체적이고 민감한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인터뷰는 대면인터뷰와 비대면인터뷰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대면인터뷰는 직접적으로 조사대상자와 연구자가 면담을 하면서, 풍부한 이슈와 내용을 비교적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무엇보다 조사 대상자로부터 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비대면인터뷰의 경우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대면인터뷰가 불가능할 경우에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설문조사가 아닌 심층인터뷰를 수행한 이유는 설문조사를 위한 충분한 응답자의 확보가 어려웠으며, 설문조사는 경기연구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심층인터뷰를 위해서, 인터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 청년기본소득 인터뷰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구성하고, 인터뷰의 목적과 내용을 구성한다.
- 청년기본소득 수혜자 중에서, 인터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대상자 등 후보를 선정한다.
- 청년기본소득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인터뷰의 내용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인터뷰 일정 등을 공지한다.

- 청년기본소득 조사를 위한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고, 어떠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대상 참여자들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예상한다.
- 참여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경청하며 진행한다.

1. 수혜대상자 심층 인터뷰

다음은 실제로, 청년기본소득 수혜대상자를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후 주요 결과를 정리하였다. 수혜대상자에 대한 심층인터뷰는 2~3회 걸쳐 추진되었으며, 총 15명의 인터뷰 참여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13명의 인터뷰 내용이 소개되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들은 남성 8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참여자들을 제외하고, 구직자, 개인사업자 및 근로자, 프리랜서, 무직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은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등 수혜기간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인터뷰의 내용은 조사 대상 청년들의 솔직한 견해를 듣기 위해 1시간 이내로 실시되었으며, 인터뷰의 진행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나 공개가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안내를 공지하여, 진행하였다.

1. 김OO(남, 구직자, 2020~2021)
2. 김OO(남, 학생, 2020~2021)
3. 김OO(여, 프리랜서, 2020~2021)
4. 권OO(여, 근로자, 2021)
5. 김OO(남, 구직자, 2020)
6. 주OO(여, 공개 원치 않음, 019~2020)
7. 유OO(남, 무직, 2019~2020)
8. 이OO(남, 공개 원치 않음, 2019)
9. 정OO(남, 개인사업자, 2019~2020)
10. 문OO(남, 개인사업자, 2019~2020)
11. 류OO(여, 근로자, 2019)
12. 김OO(여, 공개 원치 않음, 2021)
13. 박OO(남, 구직자, 2020)

〈표 4〉 청년기본소득 수혜자 인터뷰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청년기본 소득에 대한 태도	<p>(1)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한다고 하지만, 지원금을 받는 기준도 나이밖에 없고 모든 청년들이 받고 있다. 기본권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주변에 청년 기본소득을 받아서 pc방이나 술을 마시는데 대부분을 사용한다.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는 한다면, 보통의 술집은 일반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사용가능하다는 말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분별한 지원금으로 인한 세금낭비라고 생각한다.</p> <p>(2)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복지의 목적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자하는 장치라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지급 대상을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선정방식과 비슷한 소득분위별로 구간을 나눠서 보장해주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을 띄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제도가 확대된다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재정 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되는 공채발행 보다는 현 세대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세로 재원마련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p> <p>(3) 청년들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가장 크다. 고정수입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어 부담이 없다. 하지만 생각보다 좁은 사용가능 범위, 사용가능 지점 파악, 사용가능 지점의 가격 차이를 보여 조금 아쉽다.</p> <p>(4)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은 좋은 것 같으나, 지역이 경기도 한정되어 있어 경기도 외에 서울, 인천 기타 지방에 사는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청년복지로 이러한 금전적인 지원도 좋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4대 보험 필수 가입,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야근 수당 등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의 확대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해결해주는 방안이 더 청년들을 위한 복지인 것 같다.</p> <p>(5) 만 25세 경기도 도민으로서 분기마다 25만원씩 총 100만원 받게 되어 좋았지만, 너무 포퓰리즘식 복지인 것 같다. 보편적 복지보단 그 예산으로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코로나국면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보편적 복지는 더 줄이고,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지역 화폐를 통해 소비함으로써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된 것 같다.</p>

구분	주요 내용
	<p>(6)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 제공이라는 취지는 좋은 것 같다. 심지어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현금영수증도 된다는 이점이 있는 것 같다. 또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갈 에너지를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즘 국가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청년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원 해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p> <p>(7) 지금 청년에게 100%정도의 도움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는 정책이다. 사실 청년이라는 이름이 없고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이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청년을 넘어 농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할 만큼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정책이다.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는 현실에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따라 서민, 국민들이 느끼기에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요구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p> <p>(8) 청년기본소득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요즘 총 4분기로 해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100만원이 적다 생각한다</p> <p>(9) 청년들이 사회적 지위를 갖기 전 기본적 지원이란 취지는 좋으나, 근본적 해결방안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본 소득으로 세금 사용보단 근본적 해결 방안을 위한 세금 사용이 좋다 생각한다.</p> <p>(10) 청년기본소득에 관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생각으로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학생이라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상황이 쓰이거나 자기 계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방면으로 학생이 아닌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금전적으로 여유는 있다고 생각하기에 청년기본소득이라는 명분으로 굳이 세금을 더 걸어서 모든 만 24세 대상에게 지원하기보단 정말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지급하여 이 제도를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p> <p>(11)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처음에 들었을 당시에는, 다소 생소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도 부족했고, 어떠한 정책이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또한, 연간 100만원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준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도움을 주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다.</p>

구분	주요 내용
	<p>(12)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청년 지원금이며, 만24세, 경기도 거주 기간을 조건으로 수혜하는 것이 올해가 해당되어 수혜신청을 했다. 우리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이 권리를 지켜주는 하나의 정책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만 24세에 한하여 지급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p> <p>(13) 청년기본소득을 받기 전까지는 잘 체감이 되지 않았고 신청하면서도 별다른 생각은 없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받았지만, 막상 받고 나니 생각보다 좋았다. 필요한 물건을 구매한 것이 아니어도 사람이 돈을 갖고 있으니 행동이나 생각도 여유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책 중에 가장 잘 체감되며 큰 파급효과를 느끼기도 했다.</p>
물리적 만족감	<p>(1) 평소에 한 번에 큰 지출을 하기 어려운 헬스장이나 안경점, 옷가지를 사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p> <p>(2) 혼자의 힘으로 독립해서 자취하는 상황에서 월세가 밀릴 위기였으나 청년기본소득으로 생활비에 여유가 생기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겼다.</p> <p>(3) 병원 치료, 식재료, 미용실, 소모품비 등 고정비를 줄일 수 있다. 다양한 식재료 구입으로 영양섭취를 균형적으로 할 수 있고 병원진단에도 사용할 수 있어 건강치료에 도움이 된다. 소모품비 판매 지점을 찾아 구매하여 지출을 줄이고 만족감을 상승시켜준다.</p> <p>(4) 물리적으로는 확실하게 청년기본소득금을 지급 받아 소비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다. 지역에 있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빈도수가 늘었으며, 외식은 줄었지만 지역카드를 활용한 배달음식의 소비는 늘었다.</p> <p>(5) 공짜로 얻은 돈으로 인식하였고, 자기 계발이나 건전한 소비보다는 평소 소비하는 곳에 더 많은 금액을 소비하였다. 예를 들어, 밥 먹는 것에 더 비싼 음식, 더 많은 소비를 하는 등 유흥이나 여가를 즐기는데 사용하였다</p> <p>(6) 청년기본소득으로 돈이 아까워서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나 하고 싶었던 일들에 대한 기회를 부여해 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동안 생각만 했던 일들을 청년기본소득으로 소비할 수 있어서 만족감이 높았다.</p>

구분	주요 내용
	<p>(7) 졸업 후 취업준비 할 시기에 맞게 청년기본소득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낸다고 해도 자신의 돈이 필요한 시기에 서적, 여가생활 등 부족함 없이 할 수 있어 좋았다. 기본소득으로 수영강습 할 수 있어 체력 증진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특히나 소상공인 위주로 사용이 가능하여 소상공인 가게 활성화에도 도와준다는 마음이 든다.</p> <p>(8) 100만원이 적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만족감은 없다. 나는 고시생인데 밥만 사먹는데 보름이면 다 써 버린다. 좀 더 지원 해줬으면 좋겠다.</p> <p>(9) 물리적 만족감은 생각보다 크다. 100만원은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주지에서만 사용 가능해야 된다는 아쉬움은 있었다.</p> <p>(10) 청년기본소득을 받고 나서 제 자신뿐만 아닌 다른 지인들을 봤을 때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받고 전부 사용하였다. 소비 활동은 당연히 늘었을 뿐더러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헬스, 필라테스 등 다양한 운동을 청년기본소득으로 결제하고 개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지원금으로 사용하기에 생활 라이프에는 도움이 되었다.</p> <p>(11) 청년기본소득을 수혜하면서 물리적 만족감을 느꼈던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분기별 25만원이라는 금액을 경기도 시흥에서는 시루라는 모바일 화폐로 받아 사용하였는데, 대부분 장을 본다거나, 가족들과 회식을 하게 되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 좋았던 점이 몇 개 생각한다.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편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p> <p>(12) 개인적으로 취업 준비 중인 저에게 청년기본소득은 너무 감사한 지원이었다. 병원, 식자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수혜 받기 전보다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어 만족스럽고 지역화폐로 사용하기 때문에 경기도 자영업분들에게도 함께 득을 보는 이로운 사업이라고 생각한다.</p> <p>(13) 청년기본소득으로 평소에 사고 싶었던 운동복을 구매하였으며 평소에 가격 때문에 고민했었던 음식들도 망설임 없이 먹을 수 있었다. 신체적 건강 쪽으로 지출하지는 않아서 건강은 잘 모르겠으나 소비활동이 늘어나고 결론적으로 사고 싶던 운동복을 구매했으니 운동을 좀 더 하게 되어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p>

구분	주요 내용
정신적 만족감	<p>(1) 이미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생긴 돈’이라는 생각에 사고 싶거나 먹고싶은것에 평평 쓰는 경향이 보인다.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하는 것은 행복감을 줄 수 있다.</p> <p>(2) 동기부여나 성취감 측면에서 만족감을 느낀 것은 잘 모르겠다.</p> <p>(3) 고정비와 소모품비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사용 가능하여 부담이 줄어들어 비용지출의 스트레스가 완화 된다. 평등한 혜택과 물건구매를 누릴 수 있어 사회의 불평등 과 빈부격차 해소로 만족감을 느낀다.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되어 기분 좋은 소비를 할 수 있다.</p> <p>(4)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 미용실 및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증가하였으며, 그로인해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지급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 지역 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 된 것 같다.</p> <p>(5) 청년기본소득이 자기계발을 위한 도구보다는 운이 좋아 생긴 공짜 돈처럼 인식하여 사회의 불평등 해소, 스트레스 완화, 동기 부여에 기여하진 못한 것 같았다. 그냥 공짜돈 벌었다는 느낌으로써의 만족감은 컸다. 분기마다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달(月)은 마치 오랜만에 빈 친척어른들께서 주신 용돈이 생긴 것 마냥 다른 달보다 특히 여유로웠고, 매우 만족스러웠다.</p> <p>(6) 청년기본소득 제도가 현재 공부하느라 취업 준비하느라 아등바등 하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이번 달에 쓸 수 있는 돈을 다 사용하여도 지역화폐카드에 돈이 남아있다는 생각에 정신적으로 여유로웠다.</p> <p>(7) 정신적 만족감은 물리적 만족감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물리적 만족감이 높을수록 정신적 만족감도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본인도 물리적 만족감이 높아 정신적 만족감도 상당히 높게 생각하고 있다. 취업준비를 하며 경력직을 뽑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어 자격증 준비하는 것에 비해 기본소득을 통해 자격증을 준비하여 취업에 도움을 주었고 청년들의 취업에 조급한 마음에 어느 정도 완화해주었다.</p>

구분	주요 내용
	<p>(8) 청년기본소득으로 인해 나는 오히려 빨리 직장 생활을 다녀야 겠다 생각했다.</p> <p>(9) 사회적 불평등,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 청년 취업전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은 적다. 카드사 페이백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미래 납부할 세금의 대한 선 환급금 같은 느낌이다.</p> <p>(10) 청년기본소득으로 사회의 불평등 해소는 아닌 개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금액이 조금 늘었다고 생각한다. 지원금은 아무 제한 없이 만 24세 이상 대상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부분에서 지원금을 통해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늘었기에 스트레스 완화에는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말 자기개발을 위해 사용했던 청년들이 있다면 많은 지원금은 아니지만, 충분히 다시 무언가를 배우고 도전하는 동기 부여가 됐을까라고 생각한다.</p> <p>(11) 청년기본소득이 지역화폐 단위로 지급이 되었고, 사용 또한, 대기업이 아닌 자영업자 중심으로 사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이바지했다고 생각된다. 지역 내 통화량이 늘고, 지역시장을 활기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청년기본소득을 사용한 청년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다.</p> <p>(12) 물질적으로 얻는 만족감을 넘어 정신적 만족감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나는 하루 한 잔의 커피를 즐기는 것이 작은 힐링에 포함된다. 하루 한 잔의 커피 가격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청년기본소득 지원으로 인해 부담 없이 카페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일상을 가짐으로써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준비할 수 있었다.</p> <p>(13) 청년기본소득으로 돈 걱정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었다. 당장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즉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동으로도 더 당당해질 수 있었다. 또한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4분기에 걸쳐 지급되므로 과소비를 방지하고 위에서 언급했던 장점들을 지속적으로 충족할 수 있었다.</p>

구분	주요 내용
삶의 질 개선	<p>(1)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소비와 평소 소비하기 어려운 가격대의 소비를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눈치 볼 필요 없어서 편하였다.</p> <p>(2) 재정상의 여유가 생기면서 여윌돈으로 조금이라도 자기개발에 투자할 수 있던 것 같다.</p> <p>(3) 해당 지역카드에 돈을 입금하여 기본소득과 함께 사용 가능하다. 해당 지역카드 사용 시 할인율을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지혜로운 소비가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전자제품과 중고가구 판매점에 물건구매 후 시간 단축과 편리함을 얻는다.</p> <p>(4) 전체적으로 약간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해당 지원금을 받고 일정 기간에만 해당이 되며, 그 이후에는 다시 돌아왔다는 기분이 들었다.</p> <p>(5) 더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삶의 질은 개선되었다. 자기개발이나 제 목표를 위해서 사용하던 재원에 더 소비하기보다는, 오직 저의 여가활동에 있어서 소비하던 범위에서만 더 깊어지게 되었다.</p> <p>(6) 청년기본소득이 총 1년에 100만원 이긴 하지만 1분기에 25만원으로 삶의 질 개선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냥 작은 용돈이 생긴 듯한 느낌을 받았다.</p> <p>(7) 물질적 만족감, 심리적 만족감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 사실 인간에게 중요한 부분인 치료부분에서도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기본소득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삶의 질이 상당히 개선되었다.</p> <p>(8) 청년기본소득으로 저의 삶은 개선되지 않았다.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인해 삶은 개선되지 않다고 생각한다.</p> <p>(9) 조금 더 부담 없이 소비를 즐길 수 있을 뿐 삶의 질을 개선했다 생각하지 않는다.</p> <p>(10) 청년기본소득으로 인해 분기마다 지급 받는 지원금으로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평상시보다는 좋았다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배우고 싶을 때 부담되는 금액이 있었는데 청년기본소득으로 인해 고민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며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었다.</p>

구분	주요 내용
	<p>(11) 삶의 질이 체감될 정도로 개선되기엔, 청년기본소득을 수혜할 당시, 많은 인프라와 정보가 구축되지 않았던 상황들이 기억난다. 경기도 시흥에서는 모바일 화폐로 제공 되기 때문에, ‘QR코드’가 없는 매장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경우도 많았으며, 초기에는 간소하게 몇 군 데, 음식점 밖에 없어 대부분 회식하는데 사용했던 기억이 있다. 물론 가족들과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는 건, 조금이라도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p> <p>(12) 물리적, 정신적 만족감이 가장 큰 삶의 질 개선이다. 더 나아가 가족들과 함께 먹는 식재료 구입, 부모님의 선물, 저녁 외식 한 끼 등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 대화도 늘어나고 웃는 얼굴도 많이 볼 수 있게 된 것 같다.</p> <p>(13) 청년기본소득이 처음에는 내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 못 했다. 또한 지금도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은 없고 긍정적인 부분으로만 지속되었으므로 그 당시에는 큰 영향이라 생각 못 했어도 사소한 부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영향을 주었고 이 영향력은 청년기본소득이 끝나고 나서도 나비효과처럼 영향을 미쳐 미래의 나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p>
해당 제도에 대한 문제점	<p>(1) 무분별한 지원금 지급과 사용처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보통 만 24세만 된다면 받을 수 있으며, 유흥업소가 아닌 술집(일반휴게음식점)에서 유흥비로 사용되며, pc방에서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원래 의도한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대부분이 소비된다는 것이다.</p> <p>(2)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띄기 보단 소득분위별로 금액에 차등을 두는 선별적 복지의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p> <p>(3) 사용 가능 지점의 여부 파악이 편리하지 않다. 조세의 부담률이 걱정된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소득이 없는 무직을 고려한 지급차이가 없다.</p> <p>(4) 지역이 경기도 한정되어 있어 경기도 외에 서울, 인천 기타 지방에 사는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거주 지역에 서만 사용이 가능한 점이 불편하다, 청년들은 대부분 대학생 또는 직장인으로 활동</p>

구분	주요 내용
	<p>중이라서 거주하는 지역 외에도 제2의 활동지역이 있으며, 그 활동지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소비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이다.</p> <p>(5) 보여주기식, 목적을 위한 퍼주기식 복지로 생각한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부러워 하기도 했지만, 청년기본소득이 원한 의도보다는 공돈이 생긴 것에 대한 부러움이었다. 이러한 방식보다는 더욱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청년기본소득 재원이 돌아가야 한다 생각한다</p> <p>6) 아무 조건 없이 청년이기만 하면 지급한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 청년기본소득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포함한 주변에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친구들을 봤을 때, 아무런 계획 없이 흥청망청 쓰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이미 다 썼지만 청년기본소득을 받기 전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생각해보고 좀 더 계획적으로 썼다면 미래에 도움이 되거나, 의미 없는 소비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받았을 때 좀 더 쓸모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신청과정에서 소비하기 전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지역제한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도 지역에 따라 쓸 수 있는 곳의 한계가 있어서 아쉬웠다.</p> <p>(7) 1-4분기 뿐이라 한시적인 지원이라 생각이 든다. 아직 본격적인 시행이라 보기 어렵지만 정책의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농민, 비정규직 노동자, 전국민 대상으로까지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다.</p> <p>(8) 취지는 좋으나 매년 4분기를 다 시행 못한다는 점이랑 돈 액수가 적다 생각한다. 차라리 여기에 세금을 쓰지말고 다른곳에 썼으면 좋겠다.</p> <p>(9) 청년들의 기본 급여를 뒷받침하기엔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더 어려운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25만원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기본 소득금액을 늘리면 미래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늘기 때문에 기본소득보단 실질적 소득 개선이 중요하다 보인다.</p> <p>(10) 만 24세가 되면 제한 없이 모든 대상이 받는다는 점에서 규제를 두고 정말 필요한 대상에게만 지급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직장인이거나 개인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가</p>

구분	주요 내용
	<p>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한 없이 다 지급된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많은 돈을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금은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고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서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상자를 충분히 구분을 하여 대학생에게나 아니면 소득 편차를 계산해서 정말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11) 먼저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사용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루트가 완만하지 않았다. 청년기본소득을 사용한 선례도 부족했던 것 같고, 그만큼 정보가 많이 없으니, 1차원적인 경우인 식당 식사와 마트에서 물품구매 등 그러한 형태의 소비가 많았던 것 같다. 많은 정보가 주어지고, 자신에게 알맞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면 좋지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p> <p>(12) 잠깐의 물리적, 정신적 만족감은 높아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년기본소득이 소득 불균형을 초래하진 않을까 의문이다. 이 제도를 통한 세금인상이 얼마나 될지 등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만 24세에게 한정되어 주어지는 것이라면 왜 24세 인지, 취업 증진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며 이 정책으로 수혜를 받는 입장이지만 재난지원금을 쓰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 취지에서 벗어난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p> <p>(13) 나에게서는 청년기본소득의 단점은 없고 장점 밖에 없었지만 굳이 문제점을 찾자면 분기별로 나오는 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였을 때 불의의 변수로 예기치 못한 비용지출(ex.병원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선택 사항이 생기거나 사유를 작성하고 요청하여 심의를 통과하면 나머지 2, 3, 4분기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p>

2. 수혜대상자 심층 인터뷰 주요 내용

이러한 심층 인터뷰 대상자들의 응답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수혜 대상자인 만큼 중립적인 입장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만족도의 측면에서는 대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본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수혜 대상자로서 다양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5〉 청년기본소득 수혜자 인터뷰 주요 내용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청년 기본 소득에 대한 태도	☀	☹	☹	☀	☀	☹	☀	☀	☹	☀	☂	☂	☀
물리적 만족감	☀	☀	☀	☹	☹	☀	☀	☂	☀	☀	☂	☀	☀
정신적 만족감	☀	☹	☀	☹	☹	☀	☀	☂	☹	☀	☀	☀	☀
삶의 질 개선	☀	☀	☀	☀	☀	☹	☀	☂	☂	☀	☀	☀	☀
해당 제도에 대한 문제점	☹	☹	☂	☂	☂	☂	☂	☹	☹	☹	☹	☂	☀

주: ☀(긍정), ☹(중립), ☂(부정)

IV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개선방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형의 특성을 가진 복지정책이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분적으로 기여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수혜 대상자의 지급기준의 모호성, 재정부담의 가중, 정책효과의 불확실성 등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첫째, 지급 대상자 요건 및 적격성의 문제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그 수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사회의 맥락과 환경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만24세의 연령은 사회진출이 어렵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요인은 청년층의 사회적 진출을 더욱 지연시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제도에서 포함하고 있는 대상이 적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많은 경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나 대학교 진학, 취업 등의 이유로 서울 또는 타 지역에 거주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재정적 부담이다.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청년의 삶의 질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사회적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조세를 충당하여 재분배해야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금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19년~2022년 소요될 청년기본소득의 총액은 약 6,866억 원 수준으로 68만 명의 수혜 대상자를 지원하는데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본 사업의 재정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의 확보부터 집행까지 전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효과성의 문제이다. 청년기본소득의 목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즉, 수령 당시에는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소비활동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져 만족도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본 제도는 장기적인 제도가 아니며 일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삶의 질의 개선과 장기적인 행복의 지속을 추구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수혜 대상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되므로 실제로 이러한 지원금이 더욱 필요한 집단은 배제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불만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목표와 효과를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지원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되며, 사용처가 광범위하지만 가능 지점의 파악이 편리하지 않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또한, 직종을 고려한 지급의 차별성이 없다는 측면과 거주 지역에서만 활동하고 소비해야하는 불편함이 존재하기도 한다. 한시적 지원으로 제한적인 특성과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상기 논의된 청년기본소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제도의 수혜 대상을 보다 정당성 있게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상 연령과 소득수준 등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양적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질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비수혜집단 또는 소외집단으로부터의 사회적 합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청년층의 사회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구직활동의 과정에서 본 지원금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의 개선 방향은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대상자 설정이나 지역 및 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청년기본소득의 예산을 명확하게 구성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1인당 100만원씩 연간 약 16~17만 명에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재정 소요를 구체적인 정책 목표의 수립에 따라서 예산 낭비 혹은 행정비용의 확대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현행 지급되고 있는 100만원이라는 규모와 지급기간을 정책목표 달성 및 정책 효과를 고려한 검토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결국, 세금 부담의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제도의 효과성이다. 청년기본소득에 집행되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 정책의 효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청년기본소득의 수혜 대상자의 근본적인 욕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접근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지역화폐의 범용성 확대 또는 소비 등 이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결국, 지역 경제활성화라는 취지와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필수 요건인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등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있지만 사업을 추진한지 3년차에 이르는 지금 많은 사례에서 이러한 한계에 대한 지적이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원칙적인 기준을 성립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과 여건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고민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었는지를 수혜자와 비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결과들이 도출되었으며,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년기본소득의 현행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청년기본소득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주요하게 지급기준 등 수혜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행기준을 구체화하여 만24세 미만으로 한정된 기준을 사회적 이슈와 변화양상에 따라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지역 및 범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결국 조세로 충당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반대 집단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개선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은 적시에 수혜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실제 소득재분배, 빈곤 및 소득불평등완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경제적 개선 효과를 보는 데에서 더 나아가 실제 경기도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대다수의 청년기본소득 연구들의 초점은 경제적 개선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해당 정책의 실행 뿐만 아니라 실제 경기도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 서비스의 제공 방식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경기도 청년들의 정신 및 신체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청년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소득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작성하면서, 청년기본소득의 수혜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확보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제한적이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충분히 대표성을 보일 수 있도록 대규모의 설문조사와 아울러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에 있어서 객관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양적·질적 분석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을 측정 및 분석이 뒷받침된다면, 경제적 및 정치적 합리성의 충돌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향후 경기도 청년들의 생계, 구직 등을 돕는 정책을 입안할 때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설계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에서 의료적인 지식의 제공 이외에도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전략을 컨설팅해주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남훈. (2016). 성남시 청년배당 논쟁과 경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1-26
- 강신욱, 김태완, 정해식, 김현경, 김근혜. (2016),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경기연구원. (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2019년 3분기
- 경기연구원. (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의 반응과 시사점
- 구철회. (2015). 주요 사회적 이슈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37(1), 121-135
- 권정미. (2017). 청년복지정책 결정과정 연구(박사학위). 대전대학교대학원
-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7).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이행경로. 한국사회복지학, 69(3), 289-315.
- 김기현. (2016).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청년(후기청소년) 정책 방안.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대회. 61-97
- 김남희. (2017). 청년수당의 한국사회에서의 합의. 월간 복지동향(221), 52-58
- 김영미. (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27-52
- 김영미. (2018). 한국 2030세대의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5), 389-396
- 김영화. (2016). 청년복지학 연구서설. 사회복지정책, 43(3), 141-163
- 김지경, 정연순, 이계백. (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4년제 일반 대학 재학 및 졸업자를 중심으로.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영, 추주희. (2019). 광주청년드림수당의 청년소득보장정책적 효과와 만족도 연구. 인문사회 21, 10(2)
- 김충선. (2015).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p.(6), 2015년 8월
- 김혜연. (2014) 이데올로기적 다양성에 따른 기본소득의 정책 특성에 관한연구. 비판사회정책 (42), 92-139

- 노병일. (2016). 사회복지정책론. 고양: 공동체
- 문유진. (2018). 청년문제의 심화와 정부의 청년정책.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17-27
- 문진영. (2012). 이스털린 역설에 대한 연구 = 만족점의 여부를 중심으로,
- 문호영, 지창욱. (2015).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21, 1-16
- 백승호. (2017). 서울시 청년수당, 일상화된 불안정성을 넘어서 수 있을까. 월간 복지동향(225), 43-51
- 서두산. (2018). 대학생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8, 179-202.
- 석재은, 신동균, 이기주. (2015). 기초연금 도입의 정책효과와 젠더불평등 개선. 페미니즘 연구. 15(2), 205-236
- 석재은. (2018).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제안의 평가와 과도기적 기본소득의 제안: 청장년 근로 시민 기본소득이용권. 보건사회연구, 38(2), 103-132.
- 손애성. (2017). 성남시 청년배당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아세아연구, 60(1), 52-102
- 손혜경. (2009). 스웨덴의 청년실업 원인에 대한 토론과 대책. 국제노동브리프, 7(8), 68-75
- 오민애. (2016). 프랑스의 청년 실업과 청년 고용정책, 국제노동브리프, 14(2), 72-82
- 유영성 외. (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의 반응과 시사점”, 경기연구원, 2019. 09. 04
- 유영성 외. (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경기연구원, 2019. 12.
- 유영성, 김병조, 마주영. (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의 반응과 시사점. 이슈&진단, 1-25
- 유영성, 정원호, 이관형. (2019).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 이슈&진단, 1-27
- 유정호, 조민호. (2016). 한국 청년세대의 신뢰 · 갈등과 복지의식 유형에 관한 연구잠재집단분석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1), 171-207
- 이상훈, 박누리. (2018). 경기도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책연구. 1-89
- 이선영·신현기·정종원. (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전을 자극하는가: 자연실험을 활용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효과 분석. 한국행정학보, 54(3), 225-252.
- 이승운, 이정아, 백승호. (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52), 365-405
- 이승주. (2019). 청년기본소득 도입의 효과 분석: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5(1), 89-131.
- 이철선, 김영란, 변수정, 김난주, 김지경, 최서지, 최혜선, 선보영, 이민경, 김은경. (2016). 청년지원 정책 해외입법사례 및 한국의 청년 및 청년가구 지원정책제도화 방안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정이윤·최현수·반기운. (2019). 청년 기본소득 실험 설계: 모형 및 방법론적 쟁점. 정부학연구, 25(1), 43-88.

- 정종원·신현기·이선영. (2020). 기본소득의 정책피드백 효과 분석-‘부분 기본소득’으로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9(4), 55-86.
- 정준영. (2016). 이행하는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월간복지동향(207), 15-21
- 주경필. (2015) 성인도래기의 개념정립을 통한 국내 청년복지정책에 대한 소고. 청소년복지연구 17(1), 189-213
- 채창균, 최영섭, 오호영, 정채호. (2017), 한국형청년보장제도연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인숙. (2018). 기본소득제 실현가능성: 프랑스 사례. 통합유럽연구, 10(1),143-177
- 한승헌, 임다혜, 강민아. (2017). 한국 청년의 삶의 불안정성(precariousness)과 행복. 한국사회정책, 24(2), 87-126
- 허민영·염명배. (2017). 청년기본소득제도가 청년개인소득의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32.
- Blakely, T.A., Kennedy, B.P., Glass, R., & Kawachi, I. (2000). What is the lag time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health statu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4(4), 318-319.
- Diez-Roux, A. V., B. G. Link, and M. E. Northridge. 2000. A multilevel analysis of income inequality and 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Social Science & Medicine 50:673-87.
- Kahn, H. S., P. Wise, B. P. Kennedy, and I. Kawachi. 2000. State income inequality, household income, and maternal mental and physical health: Cross-sectional national survey. British Medical Journal 321:1311-15.
- Kennedy, B.P., Kawachi, I., Glass, R., & Prothrow-Stith, D. (1998). Income distribution, socioeconomic status and self-rated health in the United States: multi-level analysis. British Medical Journal, 317(7163), 917-921.
- Lochner, K., E. Pamuk, D. Makuc, B. Kennedy, and I. Kawachi. 2001. State-level income inequality and individual mortality risk: A prospective, multilevel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1:385-91.
- Soobader, M., & LeClere, F.B. (1999). Aggregation and the measurement of income inequality: effects of morbidit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8(6), 733-744.
- Subramanian S.V, Kawachi and Kennedy (2001). Does the state you live in make a difference? Multilevel analysis of self related health in the US, Soc. Sci. Med., Vol 53.
- Subramanian S.V, I Delgado, L Jadue, J Vega, I Kawachi, (2003), Income inequality and health: multilevel analysis of Chilean communities, J Epidemiol Comm Health 2003; 57:844-8.

경기도, 청년기본소득(<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dx=1037&menuId=2736>)

서울신문. (2021.10.15.) “청년기본소득이 지방대 ‘벗꽃엔딩’을 막을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15022004>)

아시아경제. (2021.07.23.) “전국민 年100만원·청년 200만원 기본소득"...이재명표 기본소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news.nate.com/view/20210723n20283>)

오마이뉴스. (2019.08.24.) “이재명의 청년기본소득실험 10명 중 8명 만족”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4865)

이데일리. (2021.08.17.) “기본소득은 포퓰리즘...현금 퍼주기 대신 맞춤형 복지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6886629148304&mediaCodeNo=257>)

일요신문. (2021.02.08.) “행정비용만 낭비” 과연 그럴까? 지역화폐 효용성 논쟁 재점화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92293)

전자신문. (2021.07.15.) “[대권 주자 정책 돋보기]이재명 '기본소득' 주요 논란은”
(<https://m.etnews.com/20210715000184>)

채널A. (2021.05.06.) [팩트맨]“UN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법”?...사실은,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8956)

한겨레21. (2016.09.27.). “강렬한 복지의 첫 경험”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395.html)

한겨레. (2019.04.24.) “[단독] ‘기본소득’ 신청 못한 경기도의 24살 청년들”,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91231.html)

한국일보. (2019.11.11.). “기본소득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00865397440>)